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The Biblical Lessons and Attitudes to Other Religions)

강사문 목사



- 히브리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구약학)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우리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와 같이 복무하는 많은 군인들이 우리 자신과 같은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 등 다원화 종교 사회이므로 군도 다원화 종교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군대란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 집단이라 나의 종교와 신앙이 달라도 싫든 좋든 간에 같이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병영생활을 위해서는 타종교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자기 종교나 교리에 얽매어 올바른 병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으로 건전한 기독교 병정으로서의 신앙과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경에 비추어 타종교와 신앙에 대해 어떤 태도가 알맞은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시대적 상황부터 살펴보자.*)

1. 오늘 우리 시대의 네 가지 특징

21세기는 하나의 문화나 사상 또는 체제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아니다. 지난 세기까지는 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를 지배해 왔고 전통적 사고와 세계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천으로 새로운 시대적 삶의 자리에 접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근대 이후(post-modernism)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한 세대 전에 서양 문화는 기독교 이후(post-christianity)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포스트모던 문명시대에 접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과 신학적 패러다임(paradigm)이 요청된다. 이런 패러다임을 위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아무리 상황과 패러다임이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메시지를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본래 성경 말씀은 일점일획도 마음대로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성경 해석사에서 점 하나 때문에 민족과 지역 감정이 심화되었고 철자 하나 때문에 신학적 논쟁은 물론 전쟁까지 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¹⁾ 성경의 존엄과 권위를 재삼 인식해야 한다.

*) 저자의 출처 《구약의 자연이해》(대한기독교서회, 2005), p. 291 이하 참조.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즉 후기 근대의 시대적 특징들을 살펴보자.

첫째 특징은 구약의 창조신학은 자연을 비신격화함으로써 과학을 태동시켰고 과학은 기술문명을 발전시켜 오늘의 과학기술문명을 이룩하였다. 이런 기술문명시대 이후에 온 것은 발전을 위한 신속한 변화이다.²⁾ 교통수단의 발달로 옛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데 한 달 걸리던 것이 요즘은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을 수 있게 하루의 생활문화권으로 바뀌고 빨라졌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서울에서 아침 먹고 미국 워싱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오게 된다. 또 디지털 통신망의 발달로 세계는 한 시간대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사건도 몇 시간 후면 곧 알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양식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도 바뀌고 있으며 또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이 가능할 만큼 세계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지난 걸프전에서 고도로 정밀화된 최신 대방어 미사일 패트리엇가 전

1)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 근처의 모레 언덕(창 12:6-8)이 모리아 산으로 혼돈이 되는 것은 즉 “*”라는 철자 하나가 없으면 모레(מורע)산이 되고, 있으면 모리아(מוריה)산이 되기 때문이다. 희랍어 철자에서도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논쟁에서 i가 없으면 homo-ousios(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다)이 되고 i가 있으면 homoi-ousios(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다)가 되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의 심각한 교리 논쟁이 되었다(R. L. Fern, *Reading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Y., 1964, p. 145; 존 히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근홍 역, 전광사, 1983, p. 45).

2) 1970년대 초 토플러(A. Toffler)의 *Future Shock*(1970)에서 진단한 대로 우리 시대는 폭발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엔 네이스비트(J. Naisbitt)의 *Megatrends 2000*에서 21세기의 신속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추세가 장신대 2000년을 향한 교수 세미나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2), p. 113-116(김철영, 미래, 가치 그리고 기독교 윤리) p. 205-212(고용수, 2000년대를 향한 장신대 신학교육 방향)

승을 결정하였다.

둘째 특징은 다원화시대이다. 이 시대는 하나의 이념이나 사상, 또는 체제나 문화에 의한 지배나 독점을 벗어나고 있다. 과거는 서양문화가 주로 세계를 지배했고 또한 세계는 민주·공산 양대 이념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어떤 하나의 체제만이 전횡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세계는 탈이념, 탈중심화, 다양화, 지역화되고 있다. 미국이 홀로 세계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세계 제패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로 세계는 힘의 균형과 힘의 결집을 위한 각자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요청된다. 힘의 독점 시대가 지났으므로 서양 문화를 대변하던 기독교 시대도 지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식구 같은 오늘의 세계 상황 아래에서 기독교는 타신앙을 가진 자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유불선 삼교가 공존하는 상황 아래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종교권을 갖고 있었으나 현대는 문화와 교통의 발달로 한 지역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예로 이슬람교를 들 수 있다. 본래 이슬람교는 아랍 족속의 종교이다. 그러나 이 아랍 족속의 종교가 다른 민족인 우리나라 백성에게까지 전달되었다. 6·25 전만 해도 이슬람교는 한국에 없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6·25동란에 참전한 터키군에 의해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상륙하게 되었고 요즈음은 중동 개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접하게 되어 한국에도 상당수의 이슬람교인이 있으니 생각해볼 문제이다.³⁾

힌두교나 불교는 본래 동양 종교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서양인 미국에도 많은 서양 불승들이 있고 불교도들이 늘고 있으니 단순하게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⁴⁾ 각자가 다양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군도 자기 종교의 선교 장소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국토방위에 우선해야 하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신앙 전력화에 총력을 매진하여야 한다.

셋째 특징은 오늘날 시대적 특징은 주종(主從)의 시대가 아니라 동반(partner)시대이다. 서로가 동반자로서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이다. 힘있는 자도 홀로 살 수 없고 힘없는 자와 협력해서 사는 시대이다. 과거 인도에서 기독교인 영국인과 힌두교인 인도인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주종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피차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동반자의 관계이다. 그래서 종교학 또는 비교종교학이 세계 각처에서 성행되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고 신학교에도 비교종교학이란 과목이 있다. 이런 비교종교학을 통해 요즘 학생들은 피차 상대방 종교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고로 기독교도 대화의 상대란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어느 것도 절대일 수가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논리나 언어적으로 유일성(uniqueness)이라는 것도 자기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기독교의 유일성에도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

3) 세계의 이슬람 교인의 수는 9.5억(세계 인구의 20%) 정도이며 1949년에 화란에 처음으로 이슬람사원이 건립되었는데 최근에는 200개 정도의 예배처로 늘어났다. 화란 인구의 2.1%가 이슬람교로 집계된다(서정운,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 장신대 출판부 편, 1992, p. 180). 현대 미국과 캐나다에도 60만의 이슬람교도가 있고 12만이 뉴욕시에 거주한다(S. Samatha, *Dialogue as a continuing Christian Concern*(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 J. Hick and B. Hebblethwaite 편집, Fortress Press, 1985), p. 170). 최근 통계에 의하면 450만으로 추산되고 50-60년 지나면 미국 주요 도시 십자가가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생달로 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교회 복음신문, 1992. 2. 17)

4) 세계 인구의 8억 이상이 힌두교도이고 3.5억 이상이 불교도에 속한다. 미국에도 50만의 불교도들이 있다. 2000년대는 힌두교가 8.5억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한다. 힌두교나 불교권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이 60만 개 정도가 있다(서정운, 위의 책, p. 182).

다.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이나 타종교가 있는 한 상대적 절대, 혹은 역사적인 절대라고 논리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입각한 대(對)종교관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구의 기독교는 쇠퇴일로에 있으며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이 타종교에 귀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계 40억 가까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약 10억(약 33%)에 가까우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2000년대 말에는 반 정도(16%)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⁵⁾ 일반적으로 믿는 자의 98-99%가 출생지역과 관계된다. 기독교 지역에 탄생했기 때문에 거의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슬람교 지역에 탄생했기 때문에 거의가 이슬람교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일 년에 교회에 한두 번 가는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이슬람교 지역에는 기독교 선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생명을 건 선교를 하고 있으나 아랍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극히 희박하다. 만일 아랍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생존권까지 보장해 주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등가적(等價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선교란 지난 세기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가 지배 선교라면 이제는 섬김의 선교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넷째 특징은 생태계의 파괴로 오는 자연의 반작용이다.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 물든 지구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것은 지역이나 종교, 민족을 초월한 세계적 과제(global task)이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화이트(L. White, Jr.)는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뿌리가 기독교로부

5) P.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p. 4.

터 유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 기독교가 자연을 비신성화하여 과학을 발전시켰으므로 오늘날 자연 파괴의 주범은 기독교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타종교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자연을 파괴해도 되는 피조물로 생각하였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 신앙에 대한 오해와 함께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너무 황폐하게 했다. 하나님은 에덴(자연 세계)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분부하셨지(창 2:15), 결코 에덴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 21세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0ppm이 되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남극의 빙하가 녹아 낮은 섬들이 사라지는 등 대재앙이 예고되고, 75% 조류가 지상에서 멸종할 것이라는 통계를 들을 때 우리는 기독교 창조 신앙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태계 위협의 결과 오늘날 세계 생태학자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동양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양 종교가들이나 학자들이 북경이나 뉴델리에 몰려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금욕 신학(ascetical theology)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하에 우리는 미래의 삶을 위해 어떤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대적인 특징을 감안하면서 우선 군 병영 내에서 타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성경에 비추어 먼저 세 종류의 신앙 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6)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Environment and Society: A Book of Readings on Environmental Policy, Attitudes, and Values*(R. T. Roelofs, J. N. Crowley and D. L. Hardesty 편집,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74), pp. 6-16.

2. 종교와 신앙의 세 가지 태도

일반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그 형태가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유일주의적(exclusivism) 태도이고, 둘째는 단일주의적(inclusivism) 태도이며, 셋째는 다원주의적(pluralism) 태도이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유일주의를 배타주의, 획일주의, 절대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도 하고, 단일주의를 우월주의, 단계주의, 포용주의, 포괄주의라고도 하며, 다원주의를 상대주의 혹은 진보주의적 신앙 태도라고도 한다. 이 세 유형의 종교와 신앙 태도를 차례로 검토하여 보자.

1) 유일주의적 종교와 그 신앙 태도

유일주의적 신앙 태도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타종교를 불신앙(unbelief)으로 규정한다. 절대적인 참다운 신앙은 하나(only one faith)뿐이고 타종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주로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s), 보수복음주의자(conservative evangelicals),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자(ecumenical evangelicals)들과 개신교 주류가 이러한 유형의 신앙 태도를 견지한다. 초대교회에는 교부 이레네우스(Irenaeus)나 터툴리안(Tertullian)이 이러한 태도를 가졌으며, 현대에는 바르트(K. Barth), 부르너(E. Brunner), 알트하우스(P. Althaus), 본회퍼(D. Bonhoeffer), 틸리히(P. Tillich), 판넨버그(W. Pannenberg), 뉴비긴(L. Newbigin)과 토마스(M. M. Thomas) 등이 이 유형의 신앙 태도를 갖는다. 니터(P. Knitter)는 이런 유형의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 주류를 별도로 취급한다.⁷⁾ 그러

7) *No Other Name?* pp. 75-119. 복음주의자(Barth)의 주장은 참된 종교는 하나뿐(One True Religion)임을 주장하고 개신교 주류 측에서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Salvation only in Christ)에게서만을 주장하므로 양자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나 두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데는 같다. 단지 계시의 인정 여부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보수), 혹은 적극적인(개신교 주류) 점에서 상거가 있을 뿐이다.

구약성경에도 유일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神)이 없음이니이다”(삼하 7:22b).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호 13:4b).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前)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0b-11).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사 44:6).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유일 신앙적인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종교를 계시 종교와 일반 종교로 대별하여 일반 종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불신앙(不信仰)으로 간주하며 기독교만이 참 신앙이고 절대 종교임을 주장했다.⁸⁾

“일반 종교는 불신앙의 종교이므로 하나님 없는 자의 큰 관심사일 뿐이다.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종교는 계시의 하나님이 하려는 것과 하시는 것을 인간의 의도로 되어진 것으로 본다. 즉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업적으로 대체된다는 말이며, 계시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실재가 인간의 진화에 의해서 주어진 인위적 신(神) 개념으로 대체되어진다는 말

8) *The Revelation of God as the Abolition of Religion,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p. 32. *No Other Name?*, p. 84.

이다.⁹⁾

그래서 일반 종교는 그 자체가 진리일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모든 종교의 참(眞)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가 곧 진리가 된다. 참 종교는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런 진술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주어진다. 이와 같은 유일 신앙적 계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으로서 가능하다.¹⁰⁾

한편 개신교 주류(the mainline protestant)에서는 특수 계시뿐 아니라 일반 계시도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에는 복음주의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나 계시의 폭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에도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 알트하우스나 폴 티리히도 일반 계시의 실재를 수락한다. 니터는 종교가 궁극적 실재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라는 티리히의 주장을 지지한다.¹¹⁾

알트하우스도 기독교가 타종교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타종교의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과 자력에 의한 구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티리히도 타종교에서의 구원을 시사하나 인간 실존의 소외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타종교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종이 없기 때문에 타종교의 구원을 거부한다. 바크티 힌두교(Bhakti Hinduism)나 아미다 불교(Amida Buddhism)도 은혜의 종교임에는 틀림없으나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

9) 위의 책, p. 84.

10) Knitter, 앞의 책, p. 82.

11) Knitter, 위의 책, p. 99.

이 없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뉴비긴도 타종교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믿음만에 의한 구원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타종교는 구원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슬람교도 알라만이 유일한 신(神)으로 모든 신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신이다. 코란 신조에도 “알라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There is no god but God)”고 한다.¹²⁾ 유일적 신앙 때문에 이슬람교도 이슬람교 외에 타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을 금한다. 마호메트도 최후의 유일한 예언자로 살아 생전에 숭천했던 자로 숭배되고 있다.

위에서 본 대로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가 유일주의적 신앙태도를 갖고 있다. 모두가 절대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피차 인정이나 조정이 불가능하고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대교는 기독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예수가 유대 역사상 유대 민족을 정치적 압박에서 구원해 준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메시아는 사울 왕(삼상 9:16)이고 다음이 다윗 왕(삼상 16:3)이다. 고레스 왕도 메시아(사 45:1)로 인 침을 받았고 주후 135년 경 로마 압제시대에 바르 코크바(Bar Kochba)도 한 때 메시아로 인정되었으나 예수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피차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십자군 시대(주후 11-12세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적군으로 혹은 사탄으로 간주하여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심각하다. 기독교인의 상징인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하기 표시를 십자가 모양(+)대신에 ⊥표

12) W. Smith, *Idolatry,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 ed. by J. Hick and P. F. Knitter(Maryknoll NY, 1987), p. 67.

사용한다. 십자가 모양의 사거리보다 삼거리를 선호한다.

피차가 유일주의적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그 갈등과 마찰은 더 심각하다. 아랍 민족의 종교로서 이슬람교와 유대 민족의 종교로서 유대교 사이에는 종교적 문제로부터 영토와 생존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한 갈등과 마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양쪽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양 종족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도 벽은 높다. 과거 기독교 국가로부터 지배와 착취를 당한 이슬람교 국가들은 기독교 선교를 제국주의적 앞잡이로 간주하여 기독교 선교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배척하고 있다. 피차 공존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즈음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그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어가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유일주의적 신앙 태도는 지배적, 또는 배타성과 독선이 문제로 등장한다. 피차 절대적이기 때문에 피차 배타성과 독선을 면치 못한다. 이런 유일주의적 신앙 태도는 배타성과 독선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악마로 간주하고 단죄까지 한다. 예를 들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대로 살아가는 핫시딤 그룹들은 자기들의 신앙만을 절대시하고 타신앙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교회당이나 이슬람교 사원에 불을 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외관상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타성이 강하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리만을 절대시하고 자기들만이 진리의 사도인 양 상대를 사탄과 마귀로 간주하는 우를 범한다. 또 이슬람교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배타성과 독선이 강하여 이슬람교를 위한 투쟁은 물론 전쟁도 불사한다. 요즈음 이슬람교 국가와의 분쟁은 주로 이런 독선과 배타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이런 경향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니터는 말하기를

“이런 유형의 신앙 태도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제한된 안목을 갖고 있으며 특수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별할 기준이 애매하고 피차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특수성과 유일성을 주장해야 함으로 역사적 상대주의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¹³⁾ 신앙 고백적 진리란 공인(公認)에 의해서 진리의 유일성이 입증될 뿐이다. 따라서 한 종교 내에서 논리나 이론적으로 유일이란 주장은 유일성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성이 있다.

2) 단일주의적 종교와 그 신앙 태도

단일주의적 신앙 태도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종교에 있으나(many ways)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하나뿐(one norm)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나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산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 있으나 어느 점에서서는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다.

주로 이런 입장에서 있는 자들의 주장은 예수는 최후의 완성자이고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구원의 예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종교는 완전한 실체이고 투명하고 완성된 진리이지만 상대방의 종교는 불완전하고 미숙한 실체이고 불투명하고 미완성된 진리라고 한다. 모두가 학생인데 자기는 우등생이고 상대방은 열등생이라는 논리이다. 이런 입장에 있는 자가 자기는 코끼리이고 상대방은 생쥐로 비유하기도 한다.¹⁴⁾ 어디까지나 자기

13) No Other Name?, p. 115-117.

14) 위의 책, p. 142.

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신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규범 중의 규범(norma normans non normata)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 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의 성공회와 회람 정교회의 일부, 중국의 송천성이나 스리랑카의 나일스(D. T. Niles) 등이 속한다.

가톨릭 제2 바티칸공의회(1965)에서 교회와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 이 공의회는 지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한 형제자매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고 타종교에도 진리와 거룩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함께 협력하면서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므로(요 14:6)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천명하였고, 또한 이슬람교와 유대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다.¹⁵⁾

이런 가톨릭의 태도와 병행하여 라너(K. Rahner)는 주장하기를,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나타났으므로, 가령 힌두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을 철저히 실천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익명의 기독교인(anonymous Christian)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타종교권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outside the church, no salvation)란 원칙이 교회 없이 구원이 없다(without church no salvation)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서 교회란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를 말한다. 즉 구원의 표식으로서 교회, 혹은 구원의 새크라멘트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한스 쾅(H. Küng)은 교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말하지만 라너나 쾅도 구원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의존하

15) *Christianity and Religions*, pp. 80–86ff.

16) 위의 책, p. 75.

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⁷⁾

이런 신앙 태도는 타종교의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포용하는 관용은 있지만 기독교의 우위성을 결정할 기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논리나 이론적으로 유한체계가 유한체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타종교는 지구와 같은 위성이라고 규정할 확실한 규범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며, 기독교는 상수이고 타종교는 변수라고 규정할 절대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원주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3) 종교다원주의적 신앙 태도

종교다원주의는 단일주의자들이 타신앙에 대해 비교적 포용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타종교를 판단하는 규범으로, 최종적인 완전계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특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럿(many ways to the center)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영국 장로교 목사인 존 히크(John Hick), 스페인 천주교인인 어머니와 힌두교인인 아버지 밑에서 양육 받은 가톨릭 신학자요 힌두교 학자인 라이문도 파니카(Raimundo Panikkar), WCC의 종교대화국장이었던 인도의 스탠리 사마르타(Stanley Samartha)와 칼 라너의 제자로 독일 개신교 신학을 전공한 폴 니터(Paul Knitter) 등이다.

히크는 지금까지 기독교 중심적 또는 예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패러다임(paradigm)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경험 속에서 궁극적 실체의 본질은 같으나 그 표현은 문화나 역사에

17) *No Other Name?*, p. 130ff.

따라 외형적인 형태는 달리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히크가 각 종교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비교하여 본 결과 표현된 언어나 양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내용은 유사하였다.¹⁸⁾ 하나님이나 신(神)이나 데우스(Deus)나 갓(God)이나 고트(Gott), 엘로힘, 알라나 그 표현양식이 문화나 언어에 따라 다른 여러 이름을 가질 뿐이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고로 예수나 붓다나 마호메트나 크리슈나(Krishna)는 구원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은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에 이미 트로엘취(E. Troeltsch)에 의하여 기독교의 절대성이 부인되었다. 더 나아가서 히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규범마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 중심적 유형(the theocentric model)을 제창하였다. 이런 사고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꾼 코페르니쿠스를 따라 소위 코페르니쿠스 혁명(copernicus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신앙의 보편적 개념과 자신의 종교 위치에 대한 극단적 변형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독교 중심이나 예수 중심에서 신앙의 보편적인 신 중심 모델로의 변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종교들이 궁극적 신의 실재에 대한 각기 다른 인간의 반응으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구체화된 다른 인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¹⁹⁾

그래서 히크는 이런 이론으로는 예수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⁰⁾ 그는 기독교의 우위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서 예수의 성육신이 후대의 신학적 체계(요한복음 1장)이므로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는 그의 메시아성을 은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의 메시아성은 사실 이라기보다 고백적 표현이요 신화라고 한다.²¹⁾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예수에게만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전부(totum Dei)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totus Deus)과 같은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다음으로 상호 종교적 경험을 통해 변형된 사람(mutational man)으로 불리는 파니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타종교의 실체와 가치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궁극적 실재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으며 각기 그 이름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종교의 종교적인 실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힌두는 익명의 그리스도로 이해된다. 불교에서 붓다는 익명의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그 기능을 감당할 뿐이다. 그래서 보편적 기독교론(universal christology)을 주장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독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타문화 종교권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다.²³⁾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예수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그리스도가 익명의 그리스도 즉 붓다가 될 수도 있다.²⁴⁾ 그래서 구원도 익명의 교회, 즉 사찰에서도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인도교회의 장로이며 WCC 대화국장을 역임한 사마르타는

18)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p. 174.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란 맥락 속에서 신 명칭의 표현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속성엔 통일성을 이룬다고 이중성은 말한다. 신명(神名)을 중국에서는 상제(上帝), 한국에서는 하나님, 일본에서는 가미(神)라고 표현하지만 신의 내용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자, 전능자, 사랑, 영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의 기능을 나타낸다(이중성, “통전적 신학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해석, 로마서 11:36”, 복음과 문화, 한국기독교학회 편, 〈신앙과 신학 8집〉, 기독교서회 편, 1991년), p. 35.

19) *No Other Name?*, p. 147.

20) 히크가 말하는 상대성이란 종교는 서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 종교가 타종교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즉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p. 148).

21) 위의 책, p. 151.

22) 위의 책, p. 172.

23) 위의 책, p. 154 이하.

24) 위의 책, p. 156.

모든 계시의 상대성을 말한다.²⁵⁾ 하나님의 전적 신비 앞에는 어떤 종교도 최종적이며 완전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계시도 역사적 상대성(historical relativity)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간의 진지한 대화가 요청된다. 그러나 대화란 종교간의 대화가 아니라 종교인들간의 대화이다. 삶과 삶의 만남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리를 향한 삶의 전진이 주어진다.

최근(1985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가(No other Name?)》라는 책을 쓴 폴 니터(Knitter)도 신 중심적인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배타적인 유일주의나 포용적인 단일주의적 신앙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한 다원주의적 신앙 태도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예수의 특수성을 말할 때 유일주의적 태도는 배타성을 면하기가 어렵고 단일주의적 태도는 우월주의를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원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특수성은 단지 관계적 특수성(relational uniqueness)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²⁶⁾ 그는 또한 참되고 성숙한 진리란,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 속에서 성숙하여진다고 본다. 고정되고 정착된 진리란 제한되고 한계성을 나타내지만 피차 보충적인 진리가 보다 성숙된 진리라고 한다.

그는 지적하기를 초대교회의 기독교론은 처음부터 대화적이고 다원적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한다.²⁷⁾ 초대교회에는 네 종류의 기독교론이 나타난다. 첫째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도래에 의하여 형성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 마라나타(Maranatha, 주여 오시옵소서, 계 22:20) 기독교론, 둘째는 신인(神人) 기독교론으로 예수의 기적과 같은 행적과 업적에서 예수

가 신으로 고백되고 인정된 기독교론, 셋째는 로고스(Logos) 기독교론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는 보편적인 기독교론, 마지막은 부활의 기독교론(paschal easter christology)으로 예수의 역사적 모습보다는 부활한 주님에 의존하는 고백적 기독교론 등이다.

이 네 유형의 기독교론이 초대교회의 역사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느 하나가 절대화되지 않고 서로 독자적 기능과 함께 상호 보충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당시 예수 자신도 메시아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희박하므로 신 중심적 기독교론(theocentric christology)으로 인식되었음이 보다 타당한 이해라고 니터는 주장한다.²⁸⁾

예수의 특수성과 유일한 규범임을 주장하는 구절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분’(딤후 2:5),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행 4:12),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요 1:14),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히 9:12) 등등의 표현은 종교의 상징적 신화적 언어이지 마지막 규범, 그리고 계시로서 독특성과 유일성을 의미하는 표현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의 절대성에 의한 기술이 아니라 언어에 의한 표현일 뿐이고 실은 신약의 중심 메시지(core message)는 예수의 절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니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들어 말한다.²⁹⁾

첫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했던 역사 문화적 상황은 여러 진리가운데 하나만이 참 진리임을 말하는 시대였고 예수의 업적 묘사에 유일적 언어가 사용된 것뿐이므로 예수의 진리가 타 진리에 배타적이거나 포용적일 필요는 없다. 둘째, 유일적 표현은 당시 유대 묵시적-종말론적 사상

25) 위의 책, p. 157 이하: "The Cross and the Rainbow : Chritian Multireligious Culture",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pp. 69-88.

26) *No Other Name?*, p. 171.

27) 위의 책, p. 177.

28) 위의 책, p. 180 이하.

29) 위의 책, pp. 182-84.

속에서 배태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는 다른 오늘에 있어서는 그런 어휘에 얼마일 필요는 없다. 셋째, 당시 로마제국의 통제하에 있던 소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치나 종교사상에 대응하여 생존을 보장할 생존언어(survival language)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독교적 어휘는 존재론적 도덕적 표현이라기보다 사회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표현이므로 이런 표현들은 공동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장들이었다고 한다.

‘유일’ (one and only)이란 용어도 철학적, 과학적, 교리적 용어라기 보다는 고백적 증언적 어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의 고백적 언어로 비유할 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할 때나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할 때 이런 고백적 언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언어도 아니므로 남편의 표현이 아내의 유일성을 입증하는 표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한다.³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표현이 타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은 잘못이라고 한다.³¹⁾

그래서 니터는 진리에 대해 좀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신앙고백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론에 대해 라너(K. Rahner)의 초월적 기독교론(transcendental christology)을 수용하나 “오직 예수에게만” 신의 실재가 주어졌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라너에 의하면 신의 실재가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으나 예수에게서만 완전하게 주어졌으므로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 본받는 일이 신의 실재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라너는 성육신 사건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수준에까지도 소급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니터는 과정 기독교론(process christology)을 도입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

30) 위의 책, p. 185.

31) 같은 쪽.

한다. 그러나 과정 기독교론은 범신론적 이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니터는 초월적 기독교론이나 과정적 기독교론은 신 중심적 유형과 맥을 같이하고 비이성적인 요인을 피할 수가 있다고 본다. 성육신의 문자적 해석은 곧 예수를 비인간화(to dehumanize)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인간화(to humanize)하는 우를 범한다고 한다. 동시에 성육신의 신화는 신과 인간의 비이원론적 통일성(nondualistic unity)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성육신’ (other incarnation)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³²⁾ 왜냐하면 해방 기독교론(liberation christology)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터는 또 예수 부활의 사건도 현현사건에서만 소개되었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사건에서 경험했던 경험은 예수 생전에도 가능한 것이고 붓다는 부활 없이도 부활 후의 예수처럼 신격화되고 영광스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사건도 특수사건이 아니라고 부활의 사건을 축소시킨다.

결론적으로 니터는 예수의 특수성을 신 중심적 비규범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신 중심적 종교신학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예수 이외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예수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희랍이나 서구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참이면 거짓은 거짓이라는 양자택일(either-or)의 사고구조였지만 지금은 이것저것의 장점을 피차 보완하며 포용하는 양자 전부(both-and)의 사고가 요청된다고 한다. 궁극적 진리란 양극성(dipolar)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 협력 보완하고 종교간에 서로 만나 화해하고 협력 보완해야 할 시대라고 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 과정을 보아도 유대 기

32) 위의 책, p. 191.

독교 공동체에서 서구 기독교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이방인 공동체로, 즉 세계 기독교가 된 것처럼 신앙 유형도 교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틀을 변형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 태도를 가졌고 하나님 왕국 건설에 전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도적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왕국과 일치되지는 않는다. 하나님 왕국의 범위는 교회의 범위보다 더 크므로 서구 교회보다는 보편적인 세계교회(global church)가 하나님 왕국에 더 가깝다고 본다.

따라서 바람직한 삶의 새 태도는 대화를 통한 성숙과 발전이다. 선교도 대화를 매체로 가능하나 선교의 개념은 타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있다가보다는 타종교인은 더 좋은 타종교인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니터는 4가지 다원주의 원칙을 설명한다. ① 타종교를 적대자로 보지 말고 동반자(partner)로 대할 것, ② 종교의 독특한 진리란 관계적 진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③ 선교에 있어서도 관계적 함축성을 말하며, ④ 보편적 세계신학(global theology)을 전개해야 함을 말한다.³³⁾

마지막으로 니터가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행동에 옮기는 올바른 실천(orthopraxis)에 있다고 한다. 대화도 실천의 한 방법이다. 아무리 성숙한 신학을 실천에 옮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33) 위의 책, p. 223.

3. 구약성서적인 태도

구약성경에는 어떤 유형의 신앙 태도가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 빛 아래서 오늘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여 보자. 성경에도 우선 유일신주의적 신앙 태도, 단일신주의적 신앙 태도, 다신론적 신앙 태도 등이 나타난다. 세 가지 신앙 태도를 각각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일신적 신앙 태도부터 살펴본다.

1) 유일신교주의(Monotheism)

유대-기독교는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 유일신교로 지칭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신교이다. 종교사에서 신관의 변천 과정을 볼 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여러 신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신교(polytheism), 다음 단계는 그 중에 한 신만이 주(主)신으로 인정되는 단일신교(henotheism), 마지막 단계는 타신(他神)들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유일신교(monotheism)로 발전하고 있다. 이집트는 본래 다신교적 종교 상황이었으나 주전 14세기 경 태양신 아톤(Aton)이 아케나톤(Akhenaton) 왕 때에 유일신으로 잠시 인정되었다. 바벨론에서도 다신교적 상황에서 함무라비 왕 때에 마르둑(Marduk) 신이 최고신으로 추대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1세(주전 12세기) 때에는 대적자가 없는 '신중의 왕' (sar ilani Marduk)으로 인정되었다.³⁴⁾ 앗수르 문화권에서도 앗수르(Assur) 신(神)이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신으로 '신들의 아버지' (Father of gods)로 불리우고 경배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일찍부터 유일신 신앙이 강조되었다. 십계명 제1

34)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Walter de Gruyter, Berlin, 1989), p. 38.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언급했고 여호와 외에는 천상천하에 어떤 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계명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여호수아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기를 지금까지 애굽 신이나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했다(수 24:14-24).

실제로 유일신앙이 명실상부하게 공인된 때는 다윗 왕조 때(주전 1000년대)로 본다. 다윗 왕은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승자였다. 정치·경제·군사와 모든 면에서 월등했으므로 주변 여러 나라를 제압했을 뿐 아니라 교역을 통해서 그의 강한 실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실체도 이웃 나라 사람에게 소개되었고 그들에 의해 인정되었다. 당시 명실상부하게 여호와는 유일한 신으로 입증되고 인정케 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삼하 7:22)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 사회가 혼탁하고 부패하여 여호와를 망각했을 때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유일신 신앙을 재천명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호 13:4)라고 하였다. 포로기의 예언자도 같은 유일신적 신앙을 강조했다(사 40:25절 이하). 이때가 가장 유일신 신앙이 강조되었던 시기이다 : “.....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사 45:21-22). 위와 유사한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많다(41:28-29, 42:17, 43:10-11, 45:5-6, 14-17, 46:1-2, 8-11 등등). 본래 구약성경은 유일신 사상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분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사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magnalia Dei)과 업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³⁵⁾ 그래서 구약성경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원 활동과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유일신적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와 같은 상황에서 타종교에 동화될 가능성이 많은 때에 자주 언급이 되었고 여호와 신앙의 위기 때에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존 기반이 약화되었을 때 유일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존재 기반을 구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유일신 신앙적 태도의 문제점은 배타성으로 지적된다. 구약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있지만 배타적인 표현은 강하지 않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단지 배타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상치되는 신적 존재에 한해서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적 존재는 우상이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그들의 제사장들은 질시의 대상이었지만 바벨론 신이나 앗수르 신을 믿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공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요 구원의 대상자들이었다(욥 4:11). 신약시대 베드로도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고 그의 민족적 배타성을 청산하고 가이사랴에서 이방전도의 문을 열었다(행 10장).

요더(J. H. Yoder)는 성경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경 본래의 진리인 선포된 진리(kerygmatic truth)와 십자군적 진리(crusade truth)를

35)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71), p. 455.

식별해야 한다고 한다.³⁶⁾ 로마 콘스탄틴 대제는 성경의 진리를 군사·정치로 많이 왜곡시켰다. 그 후 성경의 선포된 진리를 가지고 서양 문화권을 통해서 형성된 기독교가 성경적 진리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십자군적 우월주의적 기독교로 변질되었다.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와 노예제도를 결행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 문화와 반드시 병행되지는 않는다. 제도권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허물과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신적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³⁷⁾ 진리는 진리에 의해 전수되고 보존될 때 더 큰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교회가 부패할 때는 이미 교회는 진리의 보루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일 뿐이다. 몇 년 전 후기대(기독교대학) 시험지 도난 사건 같은 것은 “도덕질하지 말라”(출 20:15)는 계명이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에 오명만 남길 뿐이다.

최근 도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의식구조란 조사보고에 의하면 도시 교인들의 44.3%가 배타주의로 나타난다.³⁸⁾ 신부보다는 목사가 배타성이 강하다. 타종교를 배척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목사는 30.5%이고 신부는 한 사람도 없다. 요즘 한 장로교단(통합)에서 행한 선교의식 조사에 의하면 젊은층에서는 배타성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는 질문에 목사의 응답이 1981년엔 100%였는데 1988년에 98.48%로 줄었고, 신학생의 경우는 99%에서 85.91%로, 평신도의 경우는

97.59%에서 88.80%로 줄었다. 이런 반응의 경향은 앞으로 장로교단의 선교정책은 하나님 나라를 핵심으로 하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포괄적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³⁹⁾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적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앙과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신적(他神的) 존재를 거부했지만 그 추종자들에게는 심판 또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성숙한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

2) 단일신교주의(Henotheism)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신앙 외에도 애굽의 종교, 바벨론 종교, 가나안 종교 등 이방 종교들이 존재했었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이들 종교는 오랜 전통 속에서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는 종교로 이해되어 왔다. 다윗 왕국이 성립되며 대내외적으로 여호와 종교가 강성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높이 숭배되기도 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들어온 종교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밑곰을 좇았다(왕상 11:5).

엘리아 시대까지는 바알 종교도 인정되었으나 갈멜산에서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여호와 신앙만이 유일 신앙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엘리아 시대 전까지는 혼합적 요소가 강했으나 엘리아 이후로 여호와 종교가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사를 통해서 초기에는 이미 존재했던 세 종교

36) J. H. Yoder, "The Disavowal of Constatin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Inter-faith Dialogue", *Aspects of Interfaith Dialogue*(Ecumenical Institute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 Year Book 1975-76, Tantur Jerusalem pp. 61-64).

37) 전호진, "다원주의에 대한 선교신학적 비판", *웨슬리 복음주의 협의회보* 1992. 2. 10. p. 26.

38) 이원규, "한국사회와 종교갈등 : 개신교 배타주의 성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문화*, p. 324 이하.

39) 서정운, "우리 교단의 선교의식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교회와 신학 21집〉*(장신대 출판부, 1989), p. 306.

들에 대해 수용적이었으나 혼합주의 과정을 거쳐 나중에 엘리야 시대에 와서는 단일신교주의적 태도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괄주의에서 문제점은 피차 상대적인데 종교의 우열을 인간의 논리로써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었다. 기독교의 특수 계시만이 우수한 계시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인데, 종교적 진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즉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이웃 종교나 바알 신앙보다 우세했음을 증명하였다. 논리체계로서 종교진리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없으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실증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언행이 일치한 삶만이 참 종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그 문화나 역사의 종말과 함께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으나 여호와 종교는 나라와 역사가 끝난 지 이천오백 년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역사적 실증이 곧 참 종교를 가리는 척도인 것이다.

3) 다신교주의(Polytheism)

앞의 단일신교적 태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내에는 여러 이방 종교가 공존했으므로 그 종교들의 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바알, 아세라,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등 여러 신들이 나타나 는 다신교(多神敎)적 상황이었다. 이스라엘 종교사를 통해서 이방신들이 참신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이시고, 다른 신들은 창조자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니 참신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다(시 135편).

그러나 타종교권에 사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영역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바벨론의 느

부갓네살 왕(렘 27:6)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사 45:1)이 하나님의 종으로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mesiah)로 인정된 것은 종교 규범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행위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곳의 금은 귀중품을 약탈하여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스 1:7). 고레스 왕도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사 45:5) 메시아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종교 규범이나 교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원주의에서는 타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포괄주의는 타종교를 인정하되 한계 내에서 즉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럿 있으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다원주의에서는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타종교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타종교 문화권에서도 여호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도 예수의 제자들보다는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막 15:39). 예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등도 종교 규범을 벗어난 예수님의 추종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양성을 인간의 척도로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4.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성서적 비판

앞에서 기술된 세 종류의 신앙 유형과 태도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세 유형 모두가 성경적인 빛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유형도 성경 전체의 본래 의도를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구원, 상대주의, 선교이다.

첫째,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각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구원의 길이 인정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도적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가 문제이다.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은 가시적 정치, 경제적 구원, 해방 같은 개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압제와 굴레에서는 해방이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구원이 보다 본질적이다. 예수님도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었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이 보다 더 본질적 구원임을 말하기 때문에 타종교의 구원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종교 문화권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나서의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서도 진행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 바벨론의 종교나 앗수르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교회의 영역을 말할 때 교회 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영역이라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 내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통치영역 내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영역을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구속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이 배타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자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고 순종할 뿐이다.

둘째,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배제하고 신 중심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 중심적 구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는 모세나 예수 그리고 마호메트가 아닌 아브라함에서는 갈등이 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 예수, 마호메트를 이야기할 때처럼 기독교가 예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면 기독교는 예수의 역사성을 상실케 된다. 예수가 최종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예수의 역사성만을 주장할 때는 유대교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편성만을 주장할 때는 영지주의자로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영지주의자나 예수의 인간성만을 인정하는 유대교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역사성과 그리스도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물론 모순논리이다. 다원주의에서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므로 예수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원론적인 구조에 다시 빠지게 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포함하는(both-and) 태도가 이런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예수의 역사성을 약화시키고 거절하게 되므로 기독교의 기본교리인 성육신을 부인하는 우를 범한다. 성육신의 교리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독교의 참 진리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다원주의가 아무리 대화를 통하여 공존을 한다고 해도 기독교는 되지 못한다. 히크(Hick)은 성육신의 교리가 후대의 것이므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의견은 늦게 되었을

망정 정경화된 전후로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 성경의 진수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역사 상대주의이다. 어떻게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유한체계로는 유한체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우월주의를 대하는 태도나 다원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삶을 통하여 논증하는 길밖에 없다. 즉 고(苦)를 피하는 종교일수록 저급한 종교이고 고(苦)와 대결하여 고(苦)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하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십자가의 진리를 생활에서 구현함으로 역사 속에서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는 상수이고 타종교는 변수라는 논리가 아니고 예수의 역사성과 독특성은 그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기독교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타종교에서는 종교 창시자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주의는 선교까지 포기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양 기독교의 선교는 지배선교 혹은 정복선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때때로 선교를 하는 나라들이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는 것처럼 무력을 동원해서 피선교국들을 정복하고 기독교 이름하에 선교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란 우세한 나라의 문명이나 기술을 가지고 지배하거나 타문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금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피선교국 문화가 저급하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복음으로 살찌우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도록 변혁시키는 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피선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나 사상까지도 겸허한 태도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데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선교정신은 절대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에 있다. 이런 귀중한 진리를 망각했을 때 오는 폐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타종교들은 선교에 대한 공포증이나 기피현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

서 우리의 할 일은 기독교 선교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선교전략을 다양하게 세워야 한다. 지배란 하나님의 지배이지 인간이나 제도의 지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한 성경적인 예수님의 선교정신을 살려 하나님 선교를 하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의 전 생애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전파였고 승천 직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부탁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군에서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장병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이 논문을 맺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자 위험을 피해 웅덩이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가 보니 웅덩이에는 깊은 물이 있고 물 속에는 뱀이 입을 벌리고 위협하는 상황에 칩냥쿨을 붙들고 있지만 쥐가 칩냥쿨 줄기마저 갉아먹는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예화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안전한 쪽으로 찾아가도 결과적으로 임시적 피신은 됐지만 영구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곳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갔지만 그쪽으로 간다고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이나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원주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모두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요청된다. 우선 기독교의 독선과

배타성을 들을 때 과연 성경이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독선이나 배타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양같이 겸손과 희생이 철저하셨던 분이신데 왜 우리는 독선과 배타의 주체가 되었을까? 배타적인 태도는 물질적 혹은 물리적 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가시화된 제도 교권 속에서 인간의 힘을 과시할 때 하나님의 힘과 통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제도나 힘으로 통치되는 인간 왕국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회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독교가 절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과연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느냐는 반문을 하게 된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혼탁과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기독교의 우위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수난의 종이며 희생양이신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이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절대 종교임이 증명될 것이다. 기독교 진리가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실증될 때 참 진리로 증명되고 기독교의 독특성과 우월성이 보장된다.

2008년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독교가 18.4%로 가장 낮은 상태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로 반에 달하는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된 상태이다. 기독교의 호감도도 20.6%로 천주교(29.8%), 불교(31.5%)에 뒤진다.⁴⁰⁾ 이런 상태에서는 군선교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아무리 진중세례로 기선을 잡는다고 해도 원천적인 선교는 못 된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기독 장병의 신뢰도를 회복하여야 군선교도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

40) 기독교연합신문, 2008년 11월 23일자 (993호) 1면.

우리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오늘의 시대적 당면 과제인 생존과 공존을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하며 타종교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협력해야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분별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겸손한 태도로 섬김과 희생의 군선교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의 수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하는 대속의 고난의 종의 모습 외에는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사야 53장의 수난의 종의 겸손과 희생적 삶 외에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